

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하절기)
	2부	오전 6:00	꿈터 채플(동절기)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3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30	5층 세미나실

◆ 교회학교 안내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1·2부 (초 1~3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지하
소년1·2부 (초 4~6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신 16:11, 막 1:15, 행 2:24



우물가

2022 Winter Vol.238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36호
2022년 12월 25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행인 | 차동혁 지도 | 유지운 부장 | 송정배 팀장 | 이재만
편집위원 | 김숙희 · 이철현 · 김영남 · 이은경 · 이윤아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마음을 전하세요~

고척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

~~~~~

~~~~~

~~~~~

~~~~~

~~~~~

~~~~~

~~~~~

~~~~~

~~~~~

From.



CONTENTS

차례

- 002 담임목사 칼럼 선교의 정신이 빛나기를...
- 004 기획특집1 '23년 고척교회 비전
- 008 기획특집2 새해소망 기도문
- 016 기획특집3 찾아가는 사역탐방 | 토요 식당청소, 상례팀, 주일학교 교사
- 022 우물가 Twitter.....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다!
 세상 모든 인간도 자기의 때가 있음은
 찬양의 멈춤 그리고 다시 시작
 사회와 교회 활동
 성도의 문화를 통해 보는 현장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
 2022년을 돌아보며
- 029 특별기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 030 책, 알고싶다 [그림책]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 마리아 이바시키나 지음
- 032 우리 교회는? 각 부서 이야기
- 050 그라티아 전시회



선교의 정신이 빛나기를...



차 동 혁 담임목사

몇 해 전에 저의 휴대폰에는 알람 앱이 두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제조사의 기본 알람 앱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설치한 앱입니다. 기본 알람 앱에는 매일 네 개의 알람이 2분 간격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앱에는 한 개의 알람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앱은 간단한 수학 문제를 세 개 연속으로 맞추기 전까지는 알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벽기도회 시간에 맞춰 다섯 개의 알람을 설정하고 나서야 저는 마음 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람 한두 번 정도는 “2분만 더”를 외치며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끔은 알람 다섯 개를 모두 끄고 나서 끈 줄도 모르고, 아니 울린 줄도 모르고 잠들어버린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알람은 수학 세 문제를 풀어야 정지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언젠가부터는 첫 번째 알람 소리에 몸이 벌떡 일어나서 수학 문제 알람 앱은 삭제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울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영적 알람에 “2분만 더”를 외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울리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란 우리 영의 귀에 울리는 알람에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2분 전도 아니고 2분 후도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과거의 전도 방식이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전쟁으로 선교가 막히면 또 다른 선교의 방법과 물꼬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 정신입니다.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위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던진 질문,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4:14), 이 질문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과 같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6)

선교의 정신은 바로 이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기도입니다. 이 각오와 기도에 “2분만 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2분 후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2분 후의 선교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때의 선교 정신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는 브리타니 베빈이란 여성의 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한 토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가 걷는 길로 상심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당신을 가득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문은 열일곱 살 된 브리타니가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로 죽기 전날 밤에 쓴 것이었습니다. 결국 브리타니는 자신의 기도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하늘 상급은 없는 것일까요?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_____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녀의 인생이 열매 없는 허무함 같아 보였겠지만, 주님 눈에는 너무나 값진 보석이었음을 믿습니다. 선교의 열매보다 선교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열매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주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교회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당장 보이는 열매가 많지 않아도 전도와 선교의 정신이 밝게 빛난 두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정신이 밝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접 지역에 나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 정신으로 무장된 기도와 물질, 헌신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2분만 더”를 외치지 않는 선교, 선교 알람에 즉각 아멘으로 응답하는 선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나 객관적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선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선교, 일하는 발보다 기도하는 무릎이 먼저인 선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 정신이 작은 불씨가 되어 이 지역사회와 해외 선교지들을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태우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



1. 표어: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2. 배경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영적 에너지야말로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조직, 제도, 시설이 없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이끄시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2023년에 고척교회는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교제하며, 기도로 말씀 나누고, 기도로 복음 전하며, 기도로 행복하고 기도로 부흥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목적

2023년 고척교회가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의 표어로 목회의 중점을 잡고 나아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고척교회 성도님 한분 한분이 실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도해 힘쓰는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시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기도 체험을 할 때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 내의 사역과 관련된 선교사역에서 사역별/개인별 기도 제목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속된 부서나 교구에서 맡은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제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다양하고 실제적인 기도 모임의 유기적이고 자율적인 활성화를 통해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교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4. 주요 목회 내용

(1) '기도 나무 가꾸기'(Gardening a Prayer Tree)

한 해 동안 '고척교회 기도 나무'를 가꾸는 일에 온 성도가 참여하는 신앙 운동을 말합니다. 연중 수시로 자율적으로 소규모(2명 이상)의 기도 모임을 형성하고(기도 친구 만들기), 실제로 기도 모임을 가지며(기도 나무 심기),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기도 열매 맺기) 일을 통해 고척교회 전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한 기도 나무를 가꾸어가는 신앙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형성되는 '기도 모임'은 1년 한도로 운영되며(최장 2023년 말까지만 운영) 연중 수시로 모임과 해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로운 '목적'(기도제목)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1) 기도 친구 만들기(Making Prayer Mate)

함께 기도할 기도 친구를 찾아 기도 모임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순수하게 기도로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부서나 교구 안에서 특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뜻을 같이하는 기도 친구끼리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현재 목장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도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운 분들은 '짝기도'를 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와 기도 모임을 만들어도 됩니다. 가족이 하나의 기도 모임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도 나무 심기(Doing Prayers)

기도 친구 만들기를 마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서로 기도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으로 만나 기도 경험과 응답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모여 이런 나눔을 가지고 간략히 기도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기도 친구가 만들어진 경우이면, 가정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나무 심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3) 기도 열매 맺기(Making Fruits of Pryaer)

기도 나무 심기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주신 마음에 따라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과 섬김의 자리에 실제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이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일도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내용을 담아내는 '열매'로서의 '한 줄 간증문'을 작성해서 담당 목사님께(교구/부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위의 세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2023년 1월 중에 구체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나무 가꾸기' 신앙 운동을 해 나가면서 2023년 5월과

6월(40일) 그리고 10월과 11월(40일) 총 80일 동안 전교인 대상으로 소책자를 제공하여 매일 해당 '기도자료'를 통해 말씀읽기, 묵상, 암송, 필사, 실천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기도뱅크' 방식을 도입하여 실천의 동기 부여와 점검도 함께 해 갈 계획입니다.

(2) 교구 심방 목회 강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목회의 중요한 한 축인 심방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잔존하지만, 2023년에는 보다 나은 환경이 되리라 예상하면서 교구 심방 목회를 강화해 가려고 합니다. 일체심방 등 대면심방을 강화하고 전화심방 등 비대면심방으로 보완하며 온-오프라인 심방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목회적 돌봄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와 심방에 집중하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금요성령집회 강화

금요성령집회를 기존 보다 강화하려고 합니다. 2023년 L-12 개강 시점부터 담임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진솔한 간증들을 더하며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금요성령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 부서별 자율성 강화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교회 각 부서장의 권한과 부서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면서, 팀원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부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당회에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고, 중요 월말당회 결정 사항을 다음 제직회에 알리면서 실제적 집행으로 나아가는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희망찬 새날들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영혜 | 은퇴권사(화평2)

2023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복을 누리고, 오직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광규 | 안수집사(화평14)

지난(至難)했던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상처받은 곳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온 땅에 평화와 정의가 뿌리내리며, 교회엔 사랑이 넘치고, 가정에는 평안이 있으며, 우리의 삶엔 기도와 감사, 축복이 있게 하소서



김규업 | 장로(민음21)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고척교회가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공동체가 되고, 다음 세대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란 | 집사(은혜9)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며 제 자신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하게 하옵시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완기 | 안수집사(섬김31)

2023 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마당에 조잘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활기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꿈과 비전을 키우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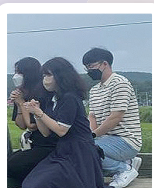
김정윤 | 장로(섬김6)

2023년에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한 해가 되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삶이 힘들어 하는 어려운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끈이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차세대를 부흥케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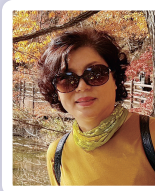
김향순 | 권사(사랑26)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때로는 지루하다고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그저 주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이었다는 깊은 고마움과 감사가 내 삶에 젖어 들었습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못 다한 사랑과 나눔을 부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형선 | (청년 94또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빛 되시고 진리요, 참 소망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렸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2023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문연옥 | 권사(은혜4)

숨을 쉬는 것, 구원하시는 것, 주가 인도하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심도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하신 것,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새해에도 주의 뜻 이루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정덕 | 안수집사(믿음25)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교회의 영적성장과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되게 하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흠여졌던 성도들이 하나가되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박명희 | 집사(은혜11)

하나님 새해에는 조금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신뢰하고 모든 죄의 형태와 영향에 맞서 싸울 때 조금 더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단 한 명에게 만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은숙 | 집사(소망26 / 고등부교사)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교회가 소중한 다음세대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감 있는 교사를 더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아들 석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삶을 복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점숙 | 권사(소망1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고척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육의 강건함과 복을 누리는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백운자 | 권사(섬김18)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패혈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남편도 주님의 동행으로 살아나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 새해엔 그 어떤 병마에도 시달리지 않고 소망이 넘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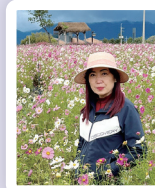
양광희 | 장로(소망35)

새해에는 기도예 힘쓰게 하소서. 내가 먼저 주안에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들이 더불어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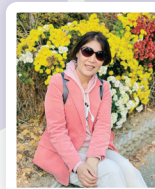
원명옥 | 집사(화평34)

지금껏 걸은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미술치료와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삶을 새해에 시작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윤정숙 | 권사(기쁨1)

2023년에도 희망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센터의 발전과 어르신들 직원들의 건강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능력으로 우리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성례 | 권사(사랑33)

한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이정우 | 집사(사랑16)

새해에는 어두운 구석을 다 걷어내어 버리고, 밝은 믿음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시작이 중요하니 작심삼일의 헛꿈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새해에는 성숙한 햇살처럼 예쁘게 나이를 먹어, 믿음과 순종으로 새 옷을 차려입고 갈급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현진 (청년87 또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말씀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임길환 | 집사(소망8)

새해에는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고척교회가 되어 모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고척 가족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다음세대, 우리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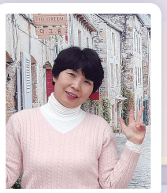
임창복 | 장로(은혜1)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 받은 사역자들, 각 부서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동감이 넘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장기영 | 장로(민음1)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주님께 올려 드리며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더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장명숙 | 권사(민음21)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장종욱 | 집사(민음19)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에는 모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축복이 언제나 넘쳐 나며, 계절의 변화를 견딘 나무의 나이테처럼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생활로 범사에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고척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옵기를 기도합니다.



전경균 | 권사(소망7)

2023년 새해에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고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새해에는 더욱 힘써 회복하게 하시며,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 아닌 하나님 뜻에 합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소서



최상덕 | 이명장로(섬김6)

길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아버지! 어렵고 힘든 병마도 잘 이기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크나큰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저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끊임없이 회복되게 하시며 복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최상태 | 집사(소망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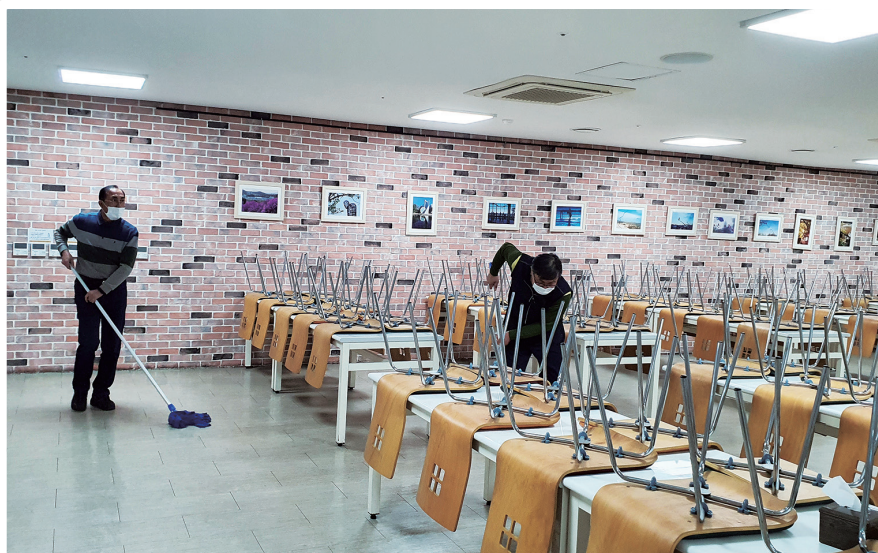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어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토요일 식당청소

싹 쓸고 닦고...식당청소 같이 하실

성도님은 어디에?

| 이홍필 안수집사(사랑35/식당청소팀장)



새 성전이 건축되고 식당에서...

맛있는 조리를 해주시며 성도들의 주일 점심 식사를 담당하시는 오병이어 팀장권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식당청소는 남자 분들이 꼭 해주었으면 하고 말합니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3주간 청소를 하면서 몸살이 나셨다고 하시면서요.

그때에는 아버지학교 출신들이 100여명 이상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에 아버지학교 팀장 을 맡고 있어서 모일 때마다 광고와 부탁을 드렸더니 약 30여명이 식당청소에 자원을 해 주셔서 4개조로 편성을 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까지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 청소를 하였답니다.

2년여 동안은 그런대로 식당청소 봉사가 잘 되었지만 이후, 식당 청소 봉사자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날에는 한명도 부르기 어려워 식당청소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폐쇄되었던 교회 오병이어 식당이 한달전부터 다시 가동 되고 있는 중에도 청소해 자원 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 매주 토요일마다 최소의 인원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부탁하는 전화 한 통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주셔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식당청소를 해 주시는 몇 분의 집사님들께 눈물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청소당번을 정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과 인원 증원으로 주일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는 오찬 시간이 모두가 은혜로운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서 썰렁하고 이럴 때는

| 김병곤 은퇴안수집사(섬김20/상례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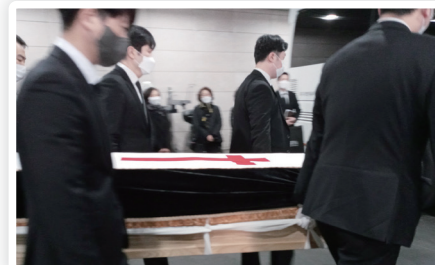


제가 상례팀에 몸을 담은 지도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초상집, 장례식장, 화장터는 무서워서 지나치곤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봉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 해는 쌍초상이 나서 운구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가 운영하는 직원들이 몇 명 와서 했고 그리고 어느 해 겨울날, 날씨는 춥고 눈보라는 치고 장지 거리는 21km, 눈속에 푹푹 빠지면서 운구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진정 고맙게 느껴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미끄러지면서 산길을 공공거리며 운구 할 때는 고맙고 미안하죠. 멀리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교회가 크다 보니 장례도 많은데 봉사자들이 나이가 많으셔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상례부가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원이 30~40명은 돼야 하는데 현재 13명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힘이 부쳐 그만두신 집사님들, 이제는 돌아가신 두 분께도 그저 고맙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지는 일 없이 봉사를 도왔습니다. 회사에 꼭 가야 할 때는 장례 발인 후에 회사에 갔습니다. 장례가 있을 시 교구목사님 연락이 오면 운구요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운구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일이 없으시면 참석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가운, 찬송, 근조기 등을 비치해 놓을 곳이 없어 불편하지만 7~8명이라도 모여지면 마음만은 편안해집니다.



장례가 있는 전날 신경을 쓰다 보면 입술이 갈라지고 터지곤 합니다. 운구를 마치고 며칠 지나 어느 유가족 집사님께서 떡을 해 오셔서 팀원들과 나누어 먹던 일, 추운 날 국밥이라도 사먹으라고 금일봉을 손에 쥐어 주시던 일들 속에 은혜 많이 받았고, 봉사하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보면 손님 없어서 썰렁하고 이럴 때는 조기 설치하러 갈때 조화도 보내고 주머니 털어 금일봉을 조의함에 넣을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때로는 팀원들과 함께 야외도 나가고 목욕도,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상례부원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새해에는 상례부 운구팀에 사역신청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의 사역은 3D 사역이 아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축복의 통로

| 이철현 안수집사(기쁨1/교육위원회 운영팀장)



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에서도 교사의 사역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3D 사역으로 공공연하게 불러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차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희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쉬운 자리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교사 사역 신청을 받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사역에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력을 기대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사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께는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에 부흥을 일으키고 내일의 멋진 리더들로 키워 나가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모두가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 메리 크리스마스 ♥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다!

| 서원성 집사(믿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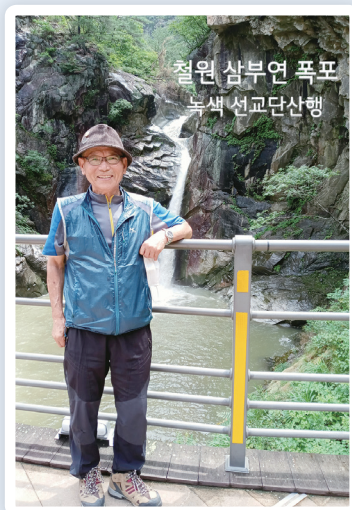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탕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85세가 넘는 성도에게 우물가에서 원고 청탁이 왔다. 일기는 오랜 세월 써 왔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글은 처음이라 사양 할까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다.

37년 9월 용산구 한남동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아득한 1967년도에 지금의 송영숙 권사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밍크 이불공장인 동선섬유를 설립하여 직원 100여명을 두고 사업이 잘 되어가는 중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회사가 파산하여 집 3채를 모두 날리고 크나큰 충격으로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중 1984년도 배순길 장로님의 인도로 고척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믿음 없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술만 마시면 구본당 나사렛관에서 밤마다 철야기도 하는 송 권사를 찾아내라고 술병을 들고 들어가 술주정하고 담임목사님 사택까지 찾아가 생떼를 부리고 관리(사찰)집사를 찾아가 술 안 사온다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던 나를 그 당시 사무장이셨던 윤석권 장로님께서 나의 못 된 행동을 사랑으로 늘 감싸 안으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2006년부터 봉사부에서 반찬 배달 봉사를 하였고 뉴욕 아들집에 갔다가 혼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집사람 자서전을 다시 보면서 나의 잘못 된 사고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상례부, 장애인 푸드뱅크 등 교회 봉사를 통하여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다.

고인이 되신 송명선 권사님의 상례부 봉사와 푸드뱅크에 사역 하였던 김미자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 교회에서의 봉사가 무엇인지 체험을 하면서 오늘도 새벽예배에 나아가 10여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나 같은 탕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잡아 주셔서 나머지 생은 남을 위해 살아 갈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인간도 자기의 때가 있음은

| 윤석권 은퇴장로(사랑2)



인생이란 잠시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90:10) 그러나 지금은 90~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바라봅니다. 연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면 날라 간다고 하니 그렇다면 장수가 크게 기대할 만한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인 뒷받침과 여러 가지 호조건들이 따라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고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다. 세상 모든 인간도 자기의 때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 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매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 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 할 때 가있느니라 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쯤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약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 낼 때까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모임과 집회가 불가능하였고 교회마다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됨은 우리를 시대에 최초로 경험 해 보는 안타까웠던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잘 감당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가 새 힘을 받아 각 부서별 모임과 남녀 선교회의 야외예배 등 친교 활동들도 재개 중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은 참 기쁨의 때이고 교회가 큰 꿈을 꾸는 때 이고 소망의 때입니다.

찬양의 멈춤 그리고 다시 시작

| 김진옥 집사(소망17/시온찬양대)



2020년 2월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찬양하는 시간이 무척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나에게 우선순위는 찬양의 삶이었고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또한 찬양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비대면 예배로 찬양은 과거영상으로 대체되며, 점점 찬양은 잘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코로나의 집합금지라는 이름 뒤로 살짝 숨어버렸다.

그 뒤로는 소속되어있던 찬양대와 합창단을 나오면서 찬양과 약간의 담을 쌓고 살면서 나에게 찬양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2022년 찬양대 복귀와 하반기에는 합창단 복귀를 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찬양은 잘함보다 마음 다해 드러지는 찬양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며 마음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찬양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려 노력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래된 찬양이고 누구에게나 친근한 곡이다. 관계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고, 물질로 힘들고,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들고 등등 나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양으로 위로받는데 기도가 담긴 줄 알지만 기도의 문이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이 바쁘다고,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요즘 믿음생활과 일과의 균형을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찬양 준비 중 집중하기 힘들고 많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깨닫는 시간의 연속이다.

내가 기도해야 할 분들이 참 많은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힘듦만을 내세우며 살았던 나 자신을 회개하며 100일 기도 통장 첫 페이지의 빈칸을 채웠다. 기도통장은 어느새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가며 오늘도 우선순위를 두고 고민하는 너무도 연약한 딸이기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원하고 바라며 기도한다.

사회와 교회 활동

| 정진호 은퇴안수집사(화평39)



"활동"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어떤 일을 활발히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발전에 크고 작은 공적이 있는 시민들의 활동으로 큰 울림을 받으면서 도전정신으로 살아가는 활동가들의 활약을 보고 우리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동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넘치는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축제의 분위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생동감이 넘쳐나도록 멋지게 안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과 찬양대와 차량부와 식당봉사부 또는 외부로 봉사하시는 선교부와 전도대 등 이 모든 봉사활동이 다 활기차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잔치 분위기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사회활동 따로 교회활동 따로 분리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회나 교회가 하나로 일치 되어서 활동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목상에 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감찰 하시사 하 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도의 문화를 통해 보는 현장

| 방극영 집사(소망10)

최근 여러 드라마나 뮤지컬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단연 흑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드라마 <리터의 눈물>은 제목만큼이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눈으로 볼 때 이 드라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라면...'이라는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불치병 때문에 서서히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 그리고 그런 주인공을 지켜보는 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드라마 전체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주인공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면 예배와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무서움을 느끼면서 봤던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뮤지컬 <태양의 나라>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수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이 주인공을 맡아 더 유명세를 탔던 <태양의 나라>에서 주인공은 태양을 볼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태양을 보여주려고 우주복을 입혀서 함께 우주로 나갑니다.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태양을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부성은 감동적이었지만, 부녀가 가지는 마음의 짐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두 주인공을 보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태양을 못 보는 문제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

| 공영수 안수집사(사랑24)

우리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변의 기침소리에도 놀라 '혹시 나에게도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등 모든 이들의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인으로서 예배와 사역은 가장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주어진 사역도 감당하기에 스스로 피곤하다, 너무 바쁘다, 이런 생각들로 게을리 하는 교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향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의 모습 특히 오병이어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릇을 씻고 청소하시는 분, 교회 지하주차장과 매연을 마셔가며 차량 주차를 안내하고 정리하시는 분, 교인 중 먼저 천국에 가시는 분들을 아름답게 모시는 상례부, 교회학교에서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본인의 시간, 개인 경비까지 사용하며 섬기는 선생님들을 볼 때, 나 자신이 너무나 작은 위치에서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고척동에서 가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척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솔선 수범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시기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담임목사님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꿈꾸는 고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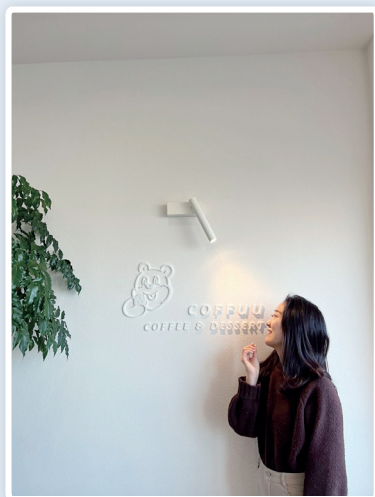
| 이희주(청년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다. 손경민의 '은혜'라는 곡이다.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를 잠시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러한 가사에도 볼 수 있듯이 이 찬양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자 감사할 제목임을 찬양한다.

올해 30대가 된 나로서는 잘 준비된 서른을 맞이하고 싶었다. 책도 많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작지만 청사진을 그려보며 한 해를 시작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 내가 계획한 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우선 생각지도 못하게 시작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에 따라 운전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유튜브TF팀을 맡으면서 영상에 대해서 작게나마 배우게 되었다. 또한 외부 선교단체를 섬기고, 교회 내 사역으로는 새가족부 리더와 워십댄스팀(DOD)과 문화사역팀(CnC)을 참여하게 되면서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다. 아멘. 기도하던 중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겠니?”

올 한해를 돌아보니 삶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도,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올 한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경의를 표한다.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 박수홍 안수집사(안수집사회 신임회장)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세월의 흐름은 강물과 같고 그 흐름을 역류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제가 고척교회에 등록한지 37년, 오랜 여정을 한 느낌입니다. 술한 나날들의 이야기들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또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25년동안 사역하면서 섬김으로 함께 했던 선생님들,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셨던 선생님들, 다음세대를 외치며 헌신하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고척교회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좋은 곳에서 믿음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학교가 인구 감소 추세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교회가 감당하기에 벅찬 환경에 처하다 보니 교사들의 수고가 더 아름답습니다.

삶의 여정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왔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 오면서, 예배의 소중함과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를 다짐해봅니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새벽제단부터 고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을 얻고 위로받는 참 좋은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십 수년만에 또 어려운 시기에 123안수집사회가 통합되어 안수집사회 회장의 중책을 맡아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삶의 여정에 함께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힘차게 새해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느낌은 전 세계 모두 통한다

| 고척교회 책마루지기(글 : 장소영 집사)

여러분은 혹시 내 마음이지만 무슨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나요??
출렁이는 내 마음속 느낌에 이름을 붙여준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나라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와 상황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서 읽다 보면 책장이 쉽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림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이 그림책으로 함께 책을 읽고 나라마다 나와 있는 3~4가지의 느낌 중에 마음에 드는 느낌을 적고 그 느낌을 고른 이유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한권의 그림책으로 4주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러나라 중에 몇 가지를 소개 해 드릴게요.

영국	스트라이크 히도니아 일을 다 끝마쳐서 더는 그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
독일	게보르겐 하이트 완벽하게 안전한 기분.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느낌.
그리스	볼타 목적없이 발길 닿는대로 걸으면서 들려오는 소리와 풍경을 즐기는 일.
인도	나즈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에서 오는 자부심과 자신감.
포르투갈	데즈분다르 가슴 속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한계를 뛰어 넘는 일.
프랑스	주아 드 비브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쁨 할 이유이다. 움직이고, 보고, 햇살의 따뜻함이나 친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밖에도 많은 나라의 감정의 이름이 있었고, 그 나라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림이 감정을 더 풍성하게 해주어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 17개국의 71개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 이 그림책을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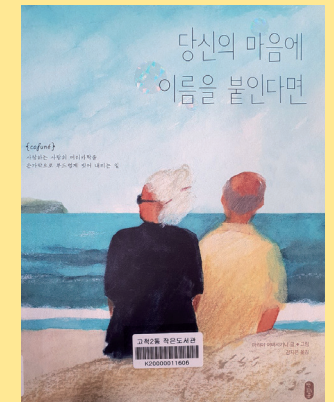
따뜻한 마음과 느낌은 전 세계
모두 통한다는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그림책 읽는 엄마 모임



[그림책]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 마리아 이바시키나 지음, 김지은 번역, 책 읽는 곰 2022.06



말씀으로 쑥쑥 부모님과 함께 자라가는 영아부

| 장은 주 목사(영아부)



영아부에서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와 부모를 위한 말씀나눔, 연계된 교육활동, 절기교육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일>

인형극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웃과의 나눔을 위한 '과일 헌물'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해온 과일을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2. 설레는 기다림 <대림절 4주간 특별교육활동>

예배실에는 가랜드와 성탄트리, 반짝이는 전구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탄트리 장식은 왜 하는지, 대림절 촛불을 왜 켜는지 그 의미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3.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축하발표>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탄축하 발표회를 위해 '아기별들의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모들에게는 아기와 함께 처음으로 무대에 선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옛 마당과 새 마당의 조화’

| 김바램 목사(유치부)

10월 가을에 처음으로 부임하여 아직은 고척이 낯선 저는 고척 마당에 서면 조화가 떠올려집니다. 벌써 8번, 유치부 아이들을 만나 얼굴을 보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세 이하의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제가 유치부에서 느끼는 감정은 교감의 풍성함입니다. 오감으로 주고 받았던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말로써 대화를 주고받는 풍성함은 유치부를 섬기게 된 새로운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온라인 또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와 교육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 영아부 공동체 안에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것은 유치부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숨을 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지요. 어린아이들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의 호흡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꿈을 꾸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하나님이 붙어주시는 생명의 숨결을 느끼는 2023년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직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지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활짝 웃으며 이 고척 마당에서 신나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날을 바라봅니다.

2023년

새로운 교역자와 함께할 유년부를 기대하며...

| 윤 정 환 목사(유년부)

새로운 교역자와 함께할 2023년 유년부를 기대합니다. 유년부는 이제 새로운 교역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 그랬던 것처럼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 또한 첫 사역지로 우리 유년부를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년부는 새로 오실 전도사님께서 유년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구와 복지재단 사역과 목사님을 돕는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야 했던 지난 시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죄송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사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

운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모자라고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주신 분들은 선생님들 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감사의 말을 때마다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래저래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계속해서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충분히 서운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것들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계속해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한 교회 안에서 유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이 하신다!”라는 우리의 구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고척교회 유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하기 참 좋은 구조

| 강 이 삭 전도사(소년부)

저는 올해 5월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소년부 관련 사역을 담당해왔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잠시 제가 담당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맡은 소년부 관련 사역은 소년 1, 2부와 어와나 불티, 티앤티와 학교 앞 전도대입니다. 각각의 부서와 프로그램들이 서로 동떨어지고 충돌하기보단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역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교육 목회자로서 사역하기 참 좋은 구조이고, 이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와 프로그램들이 각자만의 특성이 뚜렷합니다. 소년부부터 말씀드리면 1부는 오전 9시에 예배가 이루어져 아이들이 대체로 차분하고 성경 지식에 크게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부는 오전 11시에 예배가 이루어져 보다 더 활발하고 밝은 분위기에 활동적인 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의 말씀 내용은 같지만, 예배 후 이루어지는 반





별 활동은 1, 2부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부의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며 소년부 활동을 하는 것은 올해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어와나 불티, 티앤티는 80년의 역사를 지닌 말씀암송 위주의 교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와나 프로그램(말씀 암송, 어와나 게임)으로 통해, 또래 아이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접하며 익히고, 어와나만의 특별한 게임으로 교회에서 추억을 쌓고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고척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이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앞 전도대는 매주 수요일 예배 후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사역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사역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지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소년부 관련 사역을 인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이가는 중등부!

| 박 동 운 전도사(중등부)



1. 졸업여행

11월 26일 중등부 3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월미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쉽게 이번 졸업여행은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 따로 진행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다 밖을 나와 보니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네요. 고등부에 가서도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변치 않기를 응원하며 기대합니다.

2. 추수감사예배

이번 중등부 추수 감사예배 때 특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랭킹 특공대' 코너별로 게임을 진행하고 1,2,3등을 선별하여 중등부의 최강자를 뽑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하네요. 이 맛에 중등부 사역을 하나 봅니다. 감사의 제목이 2배가 되는 시간이었고 기쁨의 고백이 나날이 넘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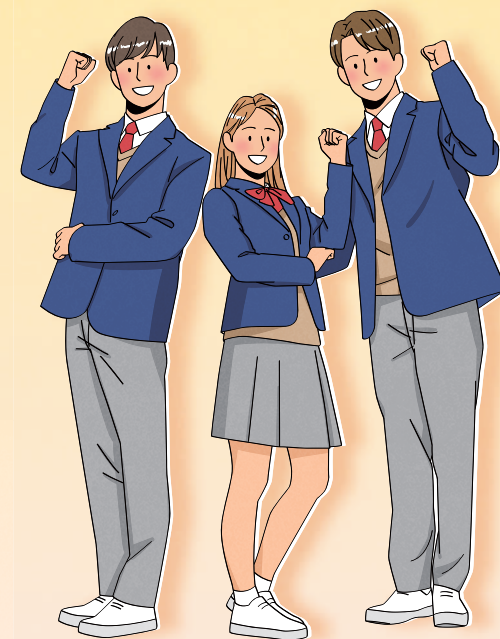


3. 소통방송

토요일 저녁 9시가 기다려집니다. 왜 기다려질까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중등부 라이브 소통방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추첨 시간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중등부 친구들의 다양한 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등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당신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 김재광 목사(고등부)



한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준비 중이다.

12월에는 고등부에서 처음으로 고3 졸업 여행을 강원도 속초로 다녀온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학여행도, 수련회도 대면으로 하지 못했던 고3들이기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으려고 한다. 고등부에서 항상 맡았던 성탄 축하 발표회 때 꿈트도 다시 준비 중에 있으며 고등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어울렸던 성탄 전

야 모임도 23일 금요일 저녁에 가지려고 한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해가며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알아가고 그 기쁨으로 고등부를 채워 가고 있다.

이를 이어 내년에는 봄 수련회를 다시 준비해 강원도 신덕 기도원에서 가질 예정이며 반별 모임, 학년별 모임 등 함께 하는 다양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제자훈련과 학생 기도에 더욱 힘을 계획이다.

“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고등부 모두와 함께 하나님 열어 주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청년부 소식

| 이 윤 아 청년('92또래, 편집위원)

1. 10월 16일 ~ 11월 20일 - 2022년 청년공동체 총회

청년공동체에서는 매년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여름에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가 여름수련회라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때쯤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는 총회이다.

2020년과 2021년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냈고 2022년에는 드디어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새해에는 청년공동체를 임원이라는 직분으로 섬기게 될 회장과 총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부총무, 서기, 회계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2023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고척 청년공동체가 내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기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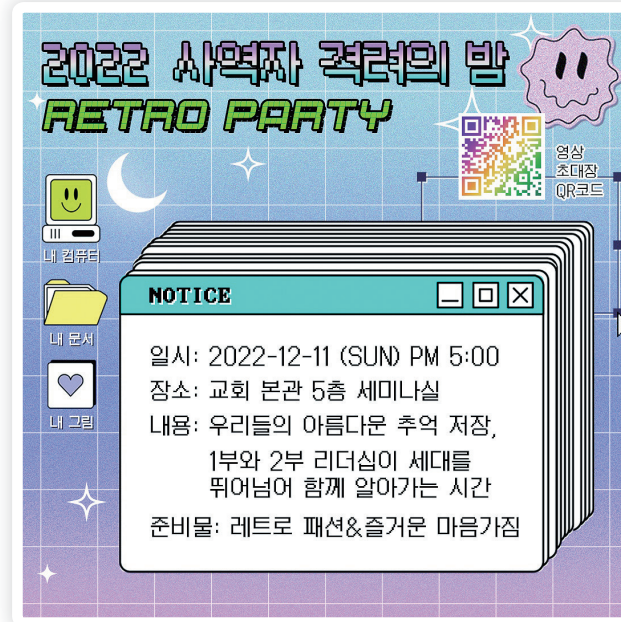


2. 12월 11일 - 2022 청년공동체 사역자 격려의 밤

올해도 청년공동체에서는 많은 리더십들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를 섬겼다. 그런 리더십들을 위해 12월 11일 예배 후 청년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역자 격려의 밤을 진행하였다.

매년 진행되는 사역자 격려의 밤은 청년공동체의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식탁교제를 하고 즐기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이다.

내년에도 우리 고척 청년공동체는 여전히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귀한 공동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를 기도해 본다.





작가: 김인숙

[사랑의 노래]

팬데믹 이전에 다녀온 여행지에서 뜨거운 태양의 빛과 열대식물의 푸르름이 어우러진 풍경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름모를 새들의 청아한 소리는 사랑의 인사라도 하듯 들렸습니다. 맑고 밝게 덧칠하지 않고 투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연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매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위안과 감동을 줍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이에게 사랑, 은혜, 기쁨 등 좋은 에너지와 마음의 평안함, 따뜻함을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작가: 오지은

[In my dream]

날아가는 파랑색 원단은 무생물이지만, 공기와 바람을 타고 생명력을 가지고 날개짓 하듯 나풀거리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날으는 원단을 볼 때, 원단 그 자체 보다는 그 움직임을 만든 어둠 보이지않는 공기와 바람의 흐름을 느낄수 있길 바라보았다.

어떤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의 열심으로 가능하게 된거이기에,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들로 돌릴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자유롭고 풍성해 지지 않을까? 이것을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다. 날아가는 원단을 앞에 두고 시선을 고정한 여인의 목에 둘러진 끈이 보이는가? 우리가 보고있는 것들은 어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채 이미 지니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여인의 목에 두른 리본을 날아가는 원단과 같은 것으로 표현해보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함과, 소중한것들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것! 알지만 잊기 쉬운 것들이다. 푸른 물결과 울동감있는 원단의 움직임을 보며 다시한번 돌아 볼 수 있길 바라본다.



작가: 노일윤

[자작나무]

우연히 만난 자작나무, 아침이슬 새하얀 자작나무 숲의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흔들리는 잎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하얀수피를 드러내며 하늘 높이 쪽 뻗어 있는 자작나무숲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 김지혜

[Midnight]

문득 어린날의 꿈이 생각났다.
꿈에 나온 유니콘은 세상의 모든 빛을 가진듯 아름다웠고, 손을 뻗으면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환상이었고, 기원과 시작을 알수없는 그리움과 반가움이 교차했었다.
그 시절 꿈에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던 그리움은 살기도 하고 살아지기도 하고 살아내기도 하며 추억속에 내려지다, 오늘 천천히 흐릿하게 그리고 더듬더듬 옮겨본다.
어린 나의 동심(童心)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온 동심(動心)이듯이...

2022년 항존직 은퇴자 명단

2023. 11. 25 기준

1. 장로

이름	나이	임직년	시무년수
심형구	만69세	2001	21년
고진환	만69세	2008	14년

2. 안수집사

이름	나이	임직년	시무년수
권혁모	만68세	2004	18년
공윤식	만60세	2006	16년
김찬기	만65세	2008	14년
양봉석	만69세	2018	4년

3. 권사

이름	나이	임직년	시무년수
조영희A	만69세	2004	18년
최흥분	만69세	2008	14년
서귀옥	만69세	2008	14년
이영자	만69세	2008	14년
조명희	만67세	2011	14년
홍점숙	만65세	2011	14년
박경자	만69세	2013	9년
송영숙	만69세	2013	9년
이화재	만67세	2013	9년
전선자	만69세	2013	9년
전희순	만70세	2013	9년
조영희B	만69세	2013	9년

4. 협동, 이명항존직

이름	나이	직분	임직년	시무년수
임종호	만68세	협동안수집사	2016.1	7년
전경균	만66세	협동권사	2016.1	7년
정창호	만69세	협동권사	2017.1	6년